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5卷(1), 2012. 4, pp. 51~75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특성화고교 학생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

김영순\* · 손진희\*\*

본 연구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 7차 교육과정(2009)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학위논문 및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논문 388편 중 15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150편의 논문은 전체 검색 논문 중에서 서로 중복되고 열람이 어렵거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등을 제외한 결과이다. 분석내용은 연구 주제, 논문발행연도, 연구자, 학위/학술지 논문구분, 연구방법,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등이었다. 분석결과,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연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진로교육,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 편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수행은 여성과 교육대학원의 특성화고교 교과교육 전공자들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 논문의 86.7%는 학위논문이었으며 검사도구는 진로성숙도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연구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로 수행되었고, t-검증 분석방법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주제어 : 특성화고교, 진로연구동향, 진로교육,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

투고일: 2011년 10월 19일, 심사일: 11월 16일, 게재확정일: 12월 30일

\* 제1저자,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상담학과 박사수료 (trsw2008@daum.net)

\*\* 제2저자,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교수 (windsjh@sunmoon.ac.kr)

## I. 서론

청소년기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 진로탐색을 하고 잠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기에 제공된 진로지도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는 다분히 진학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진로지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학지도 대부분은 상급학교, 즉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과 명성 있는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고교(구 전문계 고교)<sup>1)</sup>는 사회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인식되어 왔고(성성진, 2000), 특성화고교에 다니는 학생 스스로도 낮은 성적으로 인해서 혹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정해주신 진학지도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게 현실이다(황기호, 2009; 류성희, 2007; 박유진, 2006; 김재홍, 2004). 이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계획된 진로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재홍, 2004). 즉,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은 특성화고교의 특성을 살린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향후 진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진학 혹은 취업 후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민, 2007; 박정민, 2006; 박유진, 2006). 2002년부터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진학률이 취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0년 졸업자 156,069명 중 대학 진학자가 71.1%에 이르고 있어(교육통계 연보, 2011), 특성화고교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교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어떻게 진로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이들이 진로문제에서 일반고 학생들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진로연구에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20.5%로

1)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고, 전문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 2에 의거 2010년 6월 29일 이후 특성화고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후 표기를 특성화고로 함.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조항, 2009) 특성화고교 진로문제를 구체적인 변인을 통해 조명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성 차이를 살펴보는 남녀 청소년 비교는 상당히 이루어졌고, 학업성취도에 근거한 우수 청소년 연구(강혜원, 2009; 김영빈, 2008; 하정, 2007)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특성화고교가 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다양한 학교종류별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를 조명해 보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반고 학생과 특성화고교 학생의 비교(강승호·문은식·배정희, 2008; 신희경·김우영, 2005; 장은영, 2004)나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 특성(이지혜, 2010; 최수정, 2007)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보다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론으로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의 교육정책과 관심이 일반계 고교의 대학입시로 집중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로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성화고교의 취업기능 약화는 교육체제와 사회전반에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과 함께 청년실업 등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특성화고교 학생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한 진로에 대한 혼란, 정체성 상실 등 진로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들의 진로문제를 조명하려는 노력이 학계에서 부족했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2000년<sup>2)</sup>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연구가 어떤 주제로 어떤 연구방법을 통해 누구에 의해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특정 주제의 연구경향이나 특정 학술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일은 상담분야에서 꽤 있어왔다. 특히 상담전반의 연구경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Munley(1974), Buboltz, Miller Jr.와 Williams(1999), 유성경과 이동혁(2002) 그리고 조성호(2003) 등의 연구 이래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특정 주제의 연구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보다 초점을 갖춘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진로관련 연구경향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컨대, Buboltz, Jr., Ebberwein, Warkins과 Savickas(1995)는 일찍이 미국의 진로 및 직

2) 2000년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제 7차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등 5개의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한 6개의 교육과정 구성 방침인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등이 2000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되었으며, 이 7차 교육과정에서 '진로, 직업' 교과가 지정되었기(교육부, 1997) 때문이다.

업상담 분야의 학술지인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이하 JVB)와 Career Development Quarterly(CDQ)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을 학회지 간 비교 분석한 바가 있다. 최근에는 Loveland, Buboltz, Schwartz와 Gilbson(2006)이 CDQ에 실린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논문의 연구경향을 내용분석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진로상담 분야에 대한 연구지를 대상으로 진로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이 되었다(조항·김계현·이자명, 2009). 이와 더불어서 한편에서는 진로관련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특정한 한 주제에 초점을 두어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김수임·김창대, 2009; 선혜연·김계현, 2007) 연구의 관심이 매우 구체적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진로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Flores 등(2006)이 JVB, CDQ,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등의 진로관련 대표적인 네 개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30년간 게재된 논문들 중 인종과 소수민족에 대한 방대한 논문들을 분석한 바가 있다. Nilsson 등(2007)의 연구도 Flores 등(2006)과 비슷하게 네 개의 학회지 중에서 다국가 또는 다민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연구진이 다양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정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 분석은 그동안 큰 맥락에서 진로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연구주제 분석과 차별화된 주제탐색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국내에서도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 분석을 해도 될 만큼 진로 분야의 연구들이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에 따른 연구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특정 대상으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주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구주체들이 연구에 더 참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고 선택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연구들의 실용적인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축적된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 및 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며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선혜연·김계현, 2007).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 특성화고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국내 상담관련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도구, 연구자, 학

술지와 학위논문 비율, 분석방법 등이 최근 10여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향후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연구성과들이 어떻게 종합되어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게 하는지를 안내해줄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특성화고교 관련 진로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http://www.nanet.go.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http://library.snu.ac.kr>)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을 활용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추출 대상 연구의 수행기간은 2000에서 2010년까지인 11년으로 설정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388편이었다. 수집한 388편의 자료 중에서 학위논문과 학회지의 형태로 중복 수집된 자료들과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들, 예를 들면 특성화고교 교육정책, 학교운영 방침, 교과목 내용 개선, 교수방법 개선, 웹기반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 등의 연구자료들을 1차로 선별하였다. 이후 선별한 연구물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추출한 연구들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2차로 평가하였다.

2차 평가과정에서 적용한 연구선정의 주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의 주된 관심이 특성화고교 학생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검색된 388편 중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사본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위논문 10편, 학술지 5편은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50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류절차

연구대상인 연구들을 선정하고 연구 분류와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 2010년 6월부터 10월, 2차 2011년 9월, 3차 2011년 12월에 3명의 평정자를 활용하였다. 평정자 중 1인은 본 연구의 연구자로 상담관련 학과의 박사수료생이었고, 나머지 2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연구자들이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체 연구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제목에서 특성화고교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같은 진로와 무관한 제목의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그 다음에 전체 목록에서 남겨진 리스트의 연구들을 직접 확보해서 3명의 평정자가 일일이 자료를 검토해서 진로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토의하면서 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총 150편의 논문을 추출한 다음에는 주제 분석을 하였다. 주제 분석을 위해서 평정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이론 연구를 통해 추출한 분석틀을 평정자에게 설명하고 평정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직접 자료를 보면서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평정자 간에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견 차이를 조정하였다. 특성화고교 학생의 진로연구 주제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관계로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주제 분류에 있어서 본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주제 분류기준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평정자들 사이에서 재논의가 되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가이자 진로관련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현직 교수 3인에게 본 연구가 설정한 진로주제 분류기준의 적합도 여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를 위해 대분류 명과 소분류 명이 적절한지, 소분류 내부의 변인들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 진로준비 범주에 포함되었던 진로결정 유목이 대분류 범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진로개요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범주가 진로인식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전체 범주 분류 개수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제시된 7개에서 변동이 없었다.

### 3. 분류기준

#### 가. 연구주제 분류영역

그 동안 진로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itzgerald와 Rounds(1989)가 개발한 분류기준이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이 분류기준으로 조항, 김계현과 이자명(2009)이 국내의 저명 학술지의 진로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분류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관계로 성인 진로연구에 적합한 다양한 진로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특성화고교 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진로연구를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청소년 진로관련 여러 이론들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들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행이론들을 통해 관련 개념들을 추출해 보았다. 예컨대, Super(1957)에 따르면 고교생들은 탐색기(14~24세)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개인은 욕구, 흥미, 능력,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1951) 역시 청소년 시기를 잠정기와 현실기로 구분하고 잠정기에는 개인의 일에 대한 인식과 흥미, 능력, 가치의 인식에 관심을 가지며 현실기에는 직업선택의 상세화와 구체화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김충기(1985)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의 단계로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유지/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 희망직업탐색(선택 포함), 활동목표와 계획짜기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다(청소년 진로상담, 1996). 이런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며 서서히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업탐색을 하고 다양한 대안 속에서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주제를 청소년의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결정, 진로유지 및 개선 등으로 추출하였고, 그 외 청소년 진로에서 중요한 한 영역인 진로교육과 지도, 분류가 어려운 기타 영역 등을 첨가해서 최종적으로 8개 범주를 개발하였다. 이런 8개의 범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로상담 관련 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8개의 주제 범주 영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진로인식(career awareness): 진로인식과 관련한 진로의식(진로사고/진로신념/

- 진로인식 포함), 진로태도, 진로정체감, 직업정체감, 진로장벽,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포부, 직업자아개념, 직업흥미, 직업성격, 적성 등의 연구가 해당한다.
- 2)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진로 및 직업의 선택과 결정에 앞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연구가 해당한다.
  - 3) 진로계획(career planning): 진로에 대한 기초 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적합한 진로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계획, 진로선택, 생애설계, 취업계획 등의 연구가 해당한다.
  - 4)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으로써,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 구직행동 등의 연구가 해당한다.
  - 5) 진로결정(career decision-making): 진로결정요인,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미결정,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의사 결정유형,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장애 등에 관한 연구가 해당한다.
  - 6) 진로유지/개선(career maintain/improving): 변화하는 일과 작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로써, 진로적응, 진로몰입, 전공적응, 진로전환, 전공전환 등이 해당한다.
  - 7) 진로교육/지도(career education/counseling):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로발달, 진로상담, 직업관/직업가치관 등의 연구가 해당한다.
  - 8) 기타: 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로 진로스트레스, 진로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나. 분류방법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들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동향 연구들(선혜연·김계현, 2007; 조항 외, 2009)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논문 수, 연구자 특성(성별, 연구자 수, 소속대학원, 전공), 연구의 외적 특성(발표연도, 발표지), 연구의 내적 특성(연구주제, 연구방법, 검사도구, 분석방법)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 다. 연구방법 분류기준

연구방법의 분류를 위해서는 교육연구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최태진(2007)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분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크게 분류하였고, 세부적으로 양적 연구에 4개, 질적 연구에 3개의 연구종류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 라. 분석방법

분류 범주에 대한 평정방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주제 분류를 할 때는 모든 수집된 자료가 하나 이상의 분류 범주에 포함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진로관련 주제의 빈도로 나오도록 합산하였다. 둘째, 이렇게 코딩된 자료들은 Exce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사용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이 활용되었다.

# Ⅲ. 연구결과

## 가. 연구주제 별 분석

앞에서 언급한 연구주제 분류방식에 근거해서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를 빈도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총 150편의 논문이 분석되었는데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은 진로관련 변인이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때 2개 이상의 변인들이 제목에 있는 것도 그대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그동안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연구에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 범주는 진로인식, 진로교육 및 지도, 진로결정, 진로준비, 진로탐색, 진로유지 및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8개 범주 중 각 범주에 포함된 변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연구된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진로인식 범주에서 진로태도(성숙)가 33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진로의식으로 18편이 연구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그 외 8개 범주 전체 중에서는 단일 진로 변인으로 진로교육 변인이 46편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기타 변인들은 대부분 10편 미만으로 미미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주제가 연도별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살펴보면, 진로교육 및 지도, 진로의식 범주가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한 것과 비례해서 매년 꾸준히 연구되었다.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결정, 진로유지 및 개선 관련 주제들은 2008년 이후로 매우 드물게 연구가 되어 있어 특성화고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는 특정 주제에만 편중되어 있고 점차 연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특성화고교 학생 진로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별 빈도와 연도별 분포

범 주	연구주제	빈도 (%)	연구주제의 연도별 분포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진로 인식	진로의식(진로사고/진로신념/진로인식)	18(10.5)		1	1	2	3	4	1	1	3	2	
	진로태도(성숙)	33(19.3)			4	11	2	7	3	2	2		2
	진로정체감	2(1.2)						2					
	직업정체감												
	진로장벽	1(0.6)									1		
	역기능적 진로사고	1(0.6)								1			
	진로/직업포부(희망, 성향)	1(0.6)							1				
	직업자아개념												
	직업흥미	2(1.2)				1					1		
	직업성격												
적성													
소계	58(33.9)		1	5	14	5	13	5	5	6	2	2	
진로 탐색	진로탐색행동(직업탐색)	2(1.2)					1	1					
	소계	2(1.2)					1	1					
진로 준비	진로계획												
	진로선택	8(4.7)	1			2	2	2	1				
	생애설계												
	취업계획												
	진로준비행동	9(5.3)		1	3	1	1		1		2		
취업준비													
구직행동													
소계	17(9.9)	1	1	3	3	3	2	2		2			
진로 결정	진로결정요인	1(0.6)					1						
	진로결정수준	11(6.4)		1	1		4	1	1			2	1
	진로결정·미결정	5(2.9)			2	1				2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의사 결정유형	6(3.5)			2		1	3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8(4.7)			1			2	2	2		1	
	진로결정장애	1(0.6)					1						
소계	32(18.7)	1	6	1	7	6	3	4		2	2		

범 주	연구주제	빈도 (%)	연구주제의 연도별 분포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진로 유지/개선	진로적응성(유연성)													
	진로(결정)몰입	1(0.6)								1				
	전공적응	1(0.6)											1	
	진로전환													
	전공전환													
	소계	2(1.2)									1		1	
진로 교육/지도	진로교육 (직업교육, 진로, 취업지도)	46(26.9)	3	1	3	7	5	5	7	4	5	3	3	
	진로발달(도구 포함)	4(2.3)				1	1		1	1				
	진로상담	1(0.6)							1					
	직업관/직업가치관	5(2.9)		1		1	1		1			1		
	소계	56(32.7)	3	2	3	8	7	6	8	6	6	4	3	
기타	진로스트레스	1(0.6)											1	
	진로프로그램개발	3(1.8)							1	1		1		
	소계	4(2.3)							1	1		1	1	
계	171(100)	4	5	17	26	23	28	19	17	14	10	8		

나. 연도별 논문 수 비교

분석대상 논문 150편에 대한 연도별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들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꾸준히 10편 이상씩 수행되었고 2003년도와 2005년도는 매년 20편 이상이 수행되어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논문 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논문 수와 비율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학위 논문	4	5	15	23	13	21	14	10	12	8	5	130 (86.7)
학술지 논문	·	·	·	3	6	1	3	3	·	2	2	20 (13.3)
계(%)	4 (2.7)	5 (3.3)	15 (10.0)	26 (17.3)	19 (12.7)	22 (14.7)	17 (11.3)	13 (8.7)	12 (8.0)	10 (6.7)	7 (4.7)	150 (100)

### 다. 연구자 성별 구성 및 발표지별 비교

분석대상 논문을 수행한 연구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여성이 81편(54.0%)으로 남성 69편(46.0%)보다 더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발표지별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학위논문이었고 총 130편(86.6%)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 중에서도 많은 연구가 석사학위논문으로 수행되었고 박사학위논문은 단 5편에 불과하였다. 전체 연구물 중에서 학술지 논문은 20편(13.3%)으로 나타나 특성화고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자도 대부분 단독이거나 2인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자 성별 및 발표지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빈도(%)	
성별	남		69(46.0)	
	여		81(54.0)	
	계		150(100)	
발표지	학술지	단독연구	10(6.7)	
		공동연구	2인	8(5.3)
			3인이상	2(1.3)
	박사논문		5(3.3)	
	석사논문		125(83.3)	
	계		150(100)	

### 라. 학위논문의 연구자 전공 및 대학원 구분별 빈도와 비율

학위논문의 연구자 전공 및 소속 대학원별 빈도와 비율을 <표 4>와 같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대학원에서 이루어진 논문은 13편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인 107편(82.3%)이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상당수가 특성화고교 교과교육전공자(42.3%)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위논문의 연구자 전공 및 대학원 구분별 빈도와 비율

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소계 (%)	상담심리 /청소년복지	특성화고교 교과목/교육전공	소계 (%)	상담심리 /진로교육	교과목 전공	사회복지등
130 (100)	13 (10.0)	7 (5.4)	6 (4.6)	107 (82.3)	52 (40.0)	55 (42.3)	10 (7.7)

마. 연구방법별 분석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연구방법별로 빈도와 비율을 알아보았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연구 중에서 136편으로 90.7%인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전체 연구 중 14편인 9.3%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적 연구 중에서도 조사연구가 48편(32.0%), 상관연구 40편(26.7%), 인과-비교연구 34편(22.7%), 그 다음으로 실험연구가 14편(9.3%) 순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 어떤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양적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교의 성격을 고려하여 취업, 직업관, 직업교육 실태 및 인식 등의 조사연구가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험연구는 주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효과연구로 실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4편(2.7%), 문화기술지연구 9편(6.0%)로 나타나 문화기술지연구가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방법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유형	방법	빈도(%)
양적 연구 (136건, 90.7%)	상관연구	40(26.7)
	인과-비교연구	34(22.7)
	조사연구	48(32.0)
	실험연구	14(9.3)
질적 연구 (14건, 9.3%)	사례연구	4(2.7)
	내용분석	1(0.7)
	문화기술지연구	9(6.0)
계		150(100)

## 바. 사용한 검사도구별 분석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의 종류와 사용된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표 6>은 이를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우선 총 150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들을 조사하여 빈도수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5가지 주제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단, 다수의 연구에서 연구대상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설문이나 각 연구자 개인이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전공 및 교육과정, 진로상담, 학교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취업, 직업관,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검사도구는 본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도구는 진로인식 주제영역에서 진로의식(성숙도)은 Crites(1978)가 제작하고 김현옥(1989)이 번안한 진로성숙도검사 CMI(Career Maturity Inventory)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진로태도 성숙도를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제작한 CAMI(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가,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CPBS)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1980)가 제작하고 고희자(1992)가 번안한 CDS(Career Decision Scale)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진로의사 결정유형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Harren(1984)이 개발한 척도를 Buck와 Daniels(1985)가 수정한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표 6> 특성화고교 학생 진로관련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와 사용 빈도

범주	검사내용	검사도구	빈도	비고
진로인식	진로의식 (성숙도)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19	Crites(1978)/ 김현옥(1989), 한국교육개발원 (19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MS (Career Maturity Scale), 한국심리검사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송인섭, 이기학·한종철, 건 국대	7	
	진로의식	신영·조일규·노재훈, 이선덕, 이대영, 한국 교육개발원	4	
	진로태도 성숙도	CAMI(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7	이기학, 한종철(1997)
CD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1		

범주	검사내용	검사도구	빈도	비고
	진로정체감	MVS(My Vocational Situation)	3	Holland, Daiger Power(1980)
		VIS(Vocational Identity Scale)	2	Holland(1980), 박아청(1995), 조은주(2001)
	(역기능적) 진로사고	CTI(Career Thought Inventory)	2	Sampson, Peterson, Reardon & Saunders(1996)
	적성	Holland 적성탐색	1	안창규
진로탐색	진로탐색	이순화	1	진로결정의 하위
진로준비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검사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rvey)	4	김봉환(1997)
		박완성	1	
진로결정	진로(결정) 요인	CFI(Career Factors Inventory)	1	
	진로결정수준	CDS(Career Decision Scale)	12	Osipow(1980)/ 고향자(1992)
		CDMS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2	Taylor & Betz(1983) /이은경(2001)
	진로미결정 (유형)	CDS(Career Decision Scale)	2	
정윤경		1		
진로결정	진로 의사 결정유형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7	Harren, Buck(1984) & Daniels(1985)
		CDMS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1	Taylor & Betz(1983)
진로결정	진로 의사 결정유형	서우석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DMS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F)	3	Taylor & Betz(1983)
		CDS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1	
	진로결정과정	박성미, 이순화	1	
진로유지 /개선	진로결정몰입	CDMDQ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	2	Gati 등(1996) /김동준(1997)
		CCCS(Commitment to Career Choices Scale) 중 VECS(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	1	Blustein et. al(1989)/최수경(2007)
	전공적응		1	Lent et. al.(2008)

범주	검사내용	검사도구	빈도	비고
진로교육 /지도	진로지도	대한공업교육학회 외 2	1	
	진로발달	김봉환,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	2	Super & Over-street/이승국
	직업관	곽유석	1	
기타	진로스트레스		1	박희락(2009)

### 사. 사용한 분석방법별 비교

〈표 7〉과 〈표 8〉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에 있어서 사용된 분석방법의 사용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150편의 연구논문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분석방법은 204건이었다. 연구의 기술통계로 분류되는 평균, 표준편차 등은 제외하였으며, '기타'에는 교차분석, 단순 주효과분석, 차이분석과 같이 빈도수가 낮은 분석방법들을 포함시켰다.

<표 7> 연도별 분석방법의 빈도(총 204건)

	t-검증	ANOVA	MANOVA	$\chi^2$ 검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공변량 구조분석	경로 /구조	Duncan 검증	Scheffe 검증	기타
2000	1	3	1	2	·	·	·	·	·	·	·
2001	2	1	·	·	·	·	·	·	·	·	1
2002	5	7	1	4	2	6	·	·	·	1	2
2003	10	8	1	7	3	8	2	·	·	1	2
2004	9	4	2	5	1	1	·	·	·	3	·
2005	6	4	2	3	3	4	2	·	1	·	·
2006	4	6	1	5	·	3	·	·	1	·	3
2007	3	3	1	1	3	4	·	1	·	·	1
2008	5	4	·	·	4	3	·	·	1	1	4
2009	1	·	1	·	2	1	·	2	·	·	·
2010	1	·	1	·	·	·	·	1	·	·	2
총계 (%)	47 (23.0)	40 (19.6)	11 (5.4)	27 (13.2)	18 (8.8)	30 (14.7)	4 (2.0)	4 (2.0)	3 (1.5)	6 (2.9)	15 (7.4)

<표 8> 발표지별 분석방법의 빈도

	t검증	ANOVA	MANOVA	$\chi^2$ 검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공변량 구조분석	경로/ 구조	Duncan 검증	Scheffe 검증	기타
석사	39	33	10	23	16	24	1	2	2	4	14
박사	2	2	1	·	2	2	1	·	·	1	·
학술지	6	5	·	4	·	4	2	2	1	1	1
계(%)	47 (23.0)	40 (19.6)	11 (5.4)	27 (13.2)	18 (8.8)	30 (14.7)	4 (2.0)	4 (2.0)	3 (1.5)	6 (2.9)	15 (7.4)



〈표 8〉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은 t-검증, ANOVA(분산분석), 상관분석,  $\chi^2$ 검증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표본평균의 검증인 t-검증과 ANOVA 등을 많이 사용한 것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많이 수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현상을 제시하고 차후 의미 있는 연구로 관심을 제고하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총 388편 중에서 150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기타 분야의 진로관련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별 빈도를 살펴보았다. 기타를 제외한 총 7개의 범주로 대별해서 살펴보았는데,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진로교육과 지도, 진로결정 순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편중되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인식 범주에서도 진로성숙 변인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반면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장벽, 진로사고 등과 같은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특정 변인에 치우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고교 입학 시부터 갖게 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사고 등이 이들의 진로발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연구로 주제가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로준비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들도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상황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로유지와 개선 범주 또한 단 2편만이 수행되어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조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진로유지와 개선 범주에 속해 있는 진로몰입

은 '자신이 결정한 직업에 대한 개인의 동기화'(Carson & Bedeian, 1994)를 의미하고 진로결정 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주제에 유의미하게 등장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로 보인다. 이 주제는 졸업 후 바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 성격에 맞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연구가 적었던 이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진로유지와 개선에 해당하는 측정 도구의 부족이 한 원인으로 추론될 뿐이다.

둘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가 발표된 연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특정 기간에서 집중적으로 논문이 수행되어 연도별로 편중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10여 편씩 어느 정도 연구가 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무슨 이유로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10년 현재 고교 졸업생의 79%(교육통계연보, 2011)가 대학에 진학하는 요즘 특성화고교 학생들 또한 71.1%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 양상이 일반고교 학생들과 차별화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가 학위논문으로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석사학위논문이 83.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20편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진로연구들이 전문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의 전문학술지에 대한 낮은 게재율은 주목이 되는 현상이다. 특성화고교 논문들이 대부분 교육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학술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함께 이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일반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다.

넷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을 연구방법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90%가 넘게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도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상관연구, 인과-비교연구가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직업관이나 교육실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결과 산출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최근에 상담관련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 수행 비율이 매우 낮아 특

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고민이나 진로결정 과정 등 이들의 진로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학업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청소년의 진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예: 남경민, 2009; 김양희, 2008; 황도연, 2008; 이항심, 2007; 하정, 2007; 박승리, 2006; 이아라, 2006), 이 중에서도 남경민(2009)과 하정(2007) 등의 연구는 질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학업우수학생들에 대한 진로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바가 있다. 이런 선행연구들로부터 특성화고교 연구의 방향이나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다양한 설립목적을 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현실은 다른 계열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이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고민을 보이는지,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들에게 어떤 진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활발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의 종류와 사용된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검사 종류를 앞에서 분류한 주제 분류방식에 근거해서 살펴본 결과, 특징하게 많이 사용하는 검사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 주제 진로성숙도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진로태도검사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제작한 진로태도 성숙도검사가,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CPBS)가 많이 활용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위의 도구들은 일반 고교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도구였다. 연구주제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도구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살펴본 결과, 150편의 연구논문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분석방법은 20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은 t-검증, ANOVA(분산분석), 상관분석,  $\chi^2$ 검증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고급통계방법인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논문은 단 4편에 불과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주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결과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행된 연구주제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성격,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면 등이 편중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보다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읽는 전문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특성화고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에 의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교는 획일화된 대규모의 고등학교 형태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의 필요성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특성화고교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낙인효과(stigma)'를 발생시켜(박태준 외, 2005)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산업체에서는 기능 인력보다는 전문기능 인력을 선호하고, 내부적으로는 인문교육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자녀 수 감소 등의 원인에 의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학생들은 특성화고교 입학에 꺼리게 되고, 입학을 한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011년 하반기에 정부는 고교 졸업생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에 대한 전액 학비지원과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선 취업, 후 진학’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그 결과, 올 경제계의 화두 중 하나가 고졸채용 확대로 은행권에서 시작된 고졸채용 바람이 정부의 공생발전 주문을 타고 대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011년도 11월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77%가 취업이 확정되었고, 마이스터고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 이내의 학생이 2010년도 19%에서 2011년도 26%로 늘어나 우수한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11. 11. 25).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마이스터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특성화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21개 밖에 개교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성화고 전반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이 특성화고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특히 주체인 학생들이 어떻게 이를 지각하고 자신의 진로문제와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요 고등학교 계열 중 하나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연구를 다양한 주제로 구분해서 살펴봄으로써 연구경향을 수렴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특히 어떤 주제가 얼마나 수행되어 주제가 편중되었는지, 새롭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연구자들에게 특성화고교 진로관련 연구와 실제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연구자들에게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으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촉진할 것이고, 특성화고교 관련 주제들에게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며, 연구결과를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주제 선정 시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관련 연구논문의 제목에 나타난 진로 변인 위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주제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주제를 연역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고교 진로에 대한 연구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런 연구동향이 일반계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포괄적으로 고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연구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계고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승호·문은식·배정희(2008). 「인간관계, 학습사, 동기적 변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교」, 『교육심리개발』, 제22권 제4호, 723~742쪽.
- 강혜원(2009). 「남녀학업우수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2010년 특성화고 대학진학률.
- 김수임·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 연구』, 제10권 제3호, 1573~1591쪽.
- 김양희(2008).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중단연구: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빈(2008). 「학업우수 고등학생의 학업서열 변화와 자아개념, 정서, 실패내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홍(2004).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5).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남경민(2009).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성희(2007).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별 교육에 따른 진로의식 차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리(2006). 「학업우수여학생의 진로발달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유진(2006).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공업고등학생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2006). 「부산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 및 개선방안」,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준 외(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계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혜연·김계현(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 1997년~2006년」, 『상담학 연구』, 제8권 4호, 1467~1483쪽.
- 성성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관련 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2호, 47~83쪽.
- 아시아경제(2011. 11. 25). 마이스터고 취업률.
- 유성경·이동혁 (2002).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8권, 37~58쪽.
- 이경민(2007). 「고등학생들의 진로인식과 진로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라(2006). 「남녀 학업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심(2007).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장벽의 구조모형 검증: 우수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2004). 「희망이 성취동기, 심리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4호, 811~832쪽.
- 조항(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항·김계현·이자명(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제10권 제4호, 2099~2113쪽.
- 청소년진로상담(1996). 『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수정(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태진(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하정(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근거이론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황기호(2009). 『중학생의 직업체험학습 참여가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도연(2008). 『학업우수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와 진로포부 전통성에 관한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boltz, W. C., Jr., Ebberwein, C., Warkins., C. E. Jr., & Savickas, M. L.(1995). "A Comparison of the Content, Authors, and Institutions Represented i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and th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6 No.2, pp. 216~226.
- Buboltz, W. C., Miller, M., Jr. & Williams, D. J.(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6, pp. 496~503.
- Carson, K. D., & Bedeian, A. G.(1994). "Career commitment: Construction of a measure and examination of its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4, pp. 237~262.
- Flores, L. Y., Berkel, L. A., Nilsson, J. E., Ojeda, L., Jordan, S. E., Lynn, G. L., & Leal, V. M.(2006). "Racial/Ethnic Minority Vocational Research: A Content and Trend Analysis across 36 Year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5, pp. 2~21.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oveland, J. M., Buboltz, W. C., Schwartz, J., & Gilbson, G.(2006). "Content Analysis of CDQ From 1994-2003: Implications and Trends for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From a Decade of Research".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4, pp. 256~264.
- Munley. P. H.(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1, pp. 305~310.
- Nilsson, J. E., Flores, L. Y., Berkel, L. V., Schale, C. L., Linnemeyer, R. M., & Summer, I.(2007). "International career articles: A content analysis of four journals across 34 yea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0 No.3, pp. 602~613.



## abstract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Related Studies  
for the Stud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

Kim Youngsoon

Son Ji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career related studies for the stud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 and to propose research direction for that areas. The coding system for analysis included the following aspects: subjects of research, published year, researchers, published means, types of research method,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s. Results a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ly studied subjects were career educa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umber of papers published had been increasing for the period between 2002 and 2005, but showed an downward trend since 2006. Most of the researches were done by women and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certain subjects of specialized high school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86.7% of the papers were dissertations. Empirical based quantitative studies were used mainly as research method.

**Key word:** specialized high school, research trends of career related studies, career educati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